

ASEAN CULTURE HOUSE  
MONTHLY  
2021 07 VOL.47

# 월간 아세안 문화원

## Ocean



A container vessel floating in the Gulf of Thailand



아세안의 해상 문화

ASEAN's maritime culture

해상 실크로드: 아세안 문명의 네트워크

Maritime Silk Road: A network of ASEAN civilizations

오랑라우트, 존재감을 드러내다

The resourcefulness of the Orang Laut

아세안 언어강좌 회화반

ASEAN Language Conversation Course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 즐거운 방학생활: 베트남

Vacation Program for youths: Discover Viet Nam



동서 교역의 중심지 말레이시아 몰라카 해협 지도  
Map of the Malacca Strait, a narrow stretch of water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that was once a major hub of East-West trade

# 아세안의 해상 문화

ASEAN's  
maritime culture

해상 실크로드는 동서를 잇는 3대 교역로 중 하나로서 바닷길, 남해로 등으로도 불린다. 멀리 이집트, 로마에서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일본을 잇는 문명의 통로였던 이 길을 통해 다양한 물품, 즉 비단과 차, 면직과 향료, 도자기 등이 교역되었다. 오고 간 물품을 따라 ‘도자기길’, ‘향료길’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처음에는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와 지중해 간의 교통에서 시작해 점차 확산되면서 근대에는 전 지구를 연결하는 환지구적 교통로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향료의 주요 산지인 동남아시아를 거치지 않으면 동서 교류가 불가능했기에 아세안 국가들은 해상 실크로드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세안 10개국의 사회와 문화가 ‘열린 체계’로 설명되는 것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 문명을 수용하고 자기화한 데서 기인한다.

글 **강희정** 서강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The Maritime Silk Road, one of the world’s three major routes of sea trade that connected the East with the West, was made up of the East China and South China Sea Routes. The Maritime Silk Road connected vastly different civilizations with one another, starting from Egypt and Rome to India and the ASEAN region and extending as far as Korea and Japan. It was the primary method by which these areas of the world obtained commodities like silk, tea, textiles, spices, and porcelain. So large was the trade volume that it is also commonly referred to by the type of commodity that was traded, e.g. the spice route or porcelain route. The Maritime Silk Road began as a means of transport between Ancient Egypt, the birthplace of civilization, and the Mediterranean region, and gradually grew in both size and significance into a global transportation route by the modern period. Because East-West exchange required passing through Southeast Asia—a key source of spices—ASEAN countries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Maritime Silk Road’s development. In a sense, the sociocultural “openness” that today characterizes ASEAN’s 10 member states originated from the accommodation of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through the Maritime Silk Road.

By **Kang Hee-jung**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모든 기고문의 내용은 <월간 아세안문화원>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rticle may not reflect the opinion of the editorial board of the ASEAN Culture House Monthly.

## 아세안 언어강좌 회화반

ASEAN Language Conversation Course

아세안 언어강좌 정규반에 이어 여름을 맞아 ‘아세안 언어강좌 회화반’이 6월 29일부터 시작됐다. 회화 강좌는 봄과 가을에 열리는 정규반 사이에 진행되는 수업으로 겨울 방학 강좌에 이어 다시 개최된다.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진행했던 겨울방학 수업과 달리 여름 강좌는 오프라인 과정으로 편성하여 더욱 현장감 있고 연속적인 언어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번 강좌는 태국어와 베트남어 이외에 말레이-인도네시아어반이 새롭게 개설되어 보다 많은 아세안 언어를 접하고 싶은 수강생들에게 배움의 갈증을 풀어주는 희소식이 될 듯하다.

아세안문화원은 2018년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를 시범적으로 개설한 후 지금까지 아세안 5개 언어(캄보디아어/미얀마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아세안 언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아세안문화원 관계자는 “여름에 진행되는 아세안 언어 강좌 회화반에 꾸준한 요청이 있었던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개설했습니다. 약 열흘 간의 기간 동안 아세안 언어 구사 능력에 좋은 성과를 얻고 더 나아가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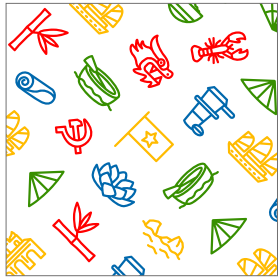
이번 아세안 언어강좌 회화반은 아세안 언어를 배우며 그 문화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회화반은 2주 집중 코스로 총 8회(주 4회, 화~금) 운영되며, 수강 신청 및 자세한 수업 정보는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www.ach.or.kr)를 참고하면 된다.

With summer in full swing, the ACH’s ASEAN Language Conversation Course was started on June 29. The conversation course, held in between the regular spring and fall program of the ASEAN Language Courses, is being offered once again due to the great demand for the course last winter. Unlike the course during the winter break, held online via Zoom, this summer’s conversation course will be an in-person program to ensure a more vivid and nuanced learning of ASEAN languages. The best aspect of this summer’s conversation course is that there will be one more language, Indonesian Malay, in addition to Thai and Viet Nameese, which is expected to make this program even more attractive for the many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studying ASEAN languages.

Following its trial program in 2018 that offered Viet Nameese and Cambodian, the ACH’s ASEAN language program has grown and now offers courses in five languages, including Cambodian, the Myanmar language (Burmese), Malay Indonesian, Thai, and Viet Nameese. It is popular among students as an invaluable and rare opportunity to learn an ASEAN language in a fun and easy-to-understand way. An ACH spokesperson said, “This summer, we are pleased to offer Malay Indonesian through the ASEAN Language Conversation Course as we received many requests for this particular language.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not only improve their command of an ASEAN language during the [approximately] 10-day period but also take an interest in Southeast Asia as a cultural sphere.”

This year’s ASEAN Language Conversation Course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anyone interested in studying an ASEAN language while learning more about the respective country’s culture. The conversation course is an intensive, two-week program that will be held over eight classes (four times per week, Tuesday to Friday).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each language course and how to join, please visit the ACH’s website at [www.ach.or.kr](http://www.ach.or.kr).





기간	7.27(화)-8.5(목)
대상	초등 3-6학년
장소	세미나실201(2층)
문의	051-775-2036
Period	July 27 to August 5
Target audience	Elementary-aged children (grades 3-6)
Venue	Seminar Room 201 (2F)
Inquiries	051-775-2036

##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

## 즐거로운 방학생활: 베트남

## Vacation Program for youths: Discover Viet Nam

아세안문화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즐거로운 방학생활’ 시리즈를 개최한다. 올해는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즐거로운 방학생활: 베트남’ 프로그램을 기획해 베트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은 총 4회로 아세안과 베트남의 개략적 소개, 문자와 일상 회화, 시장과 음식, 전통의상과 예의범절, 여행지와 축제 등 문화 체험을 포함한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신청 등 자세한 정보는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www.ach.or.kr)를 참고하자.

한편 아세안문화원은 그동안 아세안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여름방학! 시원한 아세안을 만나요’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해 아세안 동화와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아세안문화원은 ‘즐거로운 방학생활’ 시리즈를 포함해 아세안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 및 강연을 통해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This summer, just like last year, the ACH will be hosting the Vacation Program for school-aged children. To celebrate 2021, officially designated as “Mekong-ROK Exchange Year,” this year’s Vacation Program for Youths is titled “Discover Viet Nam” and will offer a multi-sensory experience. The program will consist of four classes that will be both informative and offer fun cultural experiences, including a general introduction of ASEAN and Viet Nam; an introduction to the Viet Nameese alphabet and everyday phrases; experiences of Viet Nameese marketplaces and food as well as traditional clothing and etiquette; and an introduction of must-see travel destinations and festival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program and how to apply, please visit the ACH’s website at www.ach.or.kr.

Over the years, the ACH has consistently offered a wide range of cultural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events that promote ASEAN cultures. Enjoy ‘Cool ASEAN in Summer!’ which was held in July 2018, included readings of ASEAN fairytales and film screenings for children of all ages. Moving forward, the ACH will continue to host, in addition to the Vacation Program for Youths, diverse cultural events and lectures on ASEAN culture that are both fun and instructive.

## 아세안 문화강좌:

## 알쏭달쏭 동물 이야기

## Lecture Series: ASEAN Culture and Animal Discovery

아세안 사람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온 동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아세안문화원의 기획전 <친근하고도 신비한 아세안의 동물들>과 연계한 문화강좌가 열린다.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동물을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동물을 통해 보는 아세안’, ‘아시아 신화와 동물-라마야나를 중심으로’, ‘발리의 닭싸움을 통해 보는 발리인’, ‘동물 보호의 정의와 갈등’, ‘화폐 속 문화유산과 동물’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은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www.ach.or.kr)에서 확인하자.

In conjunction with its latest special exhibition, *ASEAN Animals: Depictions of Animals in ASEAN Arts and Cultures*, the ACH is holding a lecture series that explores depictions of animals that have long served as companions and helpers of the ASEAN people. The series, which will offer five lectures between June 19 and July 24, covers multiple topics related to animals, including: “Depiction of Animals in ASEAN,” “Asian Mythology and Animals, focusing on Ramayana,” “Understanding the people of Bali Through the Balinese Cockfight,” “Animal Protection and Conflicts,” and “Cultural Relics and Animals in Currency.” For further details about the schedule and how to join the lectures, please visit the ACH’s website at www.ach.or.kr.



기간	6.19(토)-7.24(토)
장소	세미나실201(2층)
문의	051-775-2038
Period	June 19 to July 24
Venue	Seminar Room 201 (2F)
Inquiries	051-775-2038

## 기획전시

## &lt;친근하고도 신비한 아세안의 동물들&gt;

## ASEAN Animals: Depictions of Animals in ASEAN Arts and Cultures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수렵과 농경을 거치며 동물을 통해 고기와 가죽 등 물질적인 자원뿐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비물질적 자원을 얻어 왔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도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아세안문화원의 기획전 <친근하고도 신비한 아세안의 동물들>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어우러진 동물의 친근한 모습뿐 아니라 아세안 문화에서 탄생한 상상 속 동물을 만나볼 수 있다.

아세안의 설화와 신화 등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동물들은 신격화되거나 의인화된 형상으로 등장해 건축·공예·미술 등의 문화 요소를 다채롭게 장식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동쪽 회랑 벽면의 부조와 앙코르툼에 이르는 다리 난간에 묘사된 물의 신 ‘나가’는 고대 힌두 설화에 기원을 둔다. 나가는 힌두 창제 신화인 ‘우유 바다 휘젓기’에서 신들의 조력자이며, 태국과 라오스의 불상에선 일곱 개의 머리를 지닌 채 가부좌를 튼 부처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물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는 ‘싱하’ 또는 ‘친뎨’의 모습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예술 작품에 등장한다. 마치 우리나라의 해태를 연상시키는 이 상상 속 사자는 아세안 사람들이 중시하는 용맹과 위엄을 대변한다. 코끼리의 코와 사자의 몸통을 지닌 ‘가자싱하(Gajasingha)’, 코끼리의 코와 상아, 수탉의 뺨, 뱀의 비늘, 새의 날개를 지닌 ‘하트사딜링(Hatsadiling)’, 반인반조인 ‘키나라&키나리(Kinnara&Kinnari)’ 등 현실 세계의 여러 동물이 결합된 상상 속 동물을 통해 아세안 사람들의 재치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안동 하회세계탈박물관 등의 소장 유물뿐 아니라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도 전시 중이다. 아세안 지역의 전통 예술인 그림자 연극을 모티브로 한 국의 미술 작가들이 창의력을 발휘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그림자 숲 이야기(Shadow Forest Story)’가 대표적이다. 전시실을 나가기 전 아세안 10개국의 대표적인 상징 동물이 그려진 드로잉 카드를 선물로 증정한다. 여러 번 방문해도 좋을 만큼 볼거리가 풍성하니 전시가 끝나기 전에 발걸음을 서두르자.

Since prehistoric times, humans have used animals, through hunting and farming, to obtain both material (meat, leather, etc.) and non-material (labor) resources. The practice of regarding pets as a member of the family and engaging in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them is by no means a modern-day phenomenon. The latest special exhibition at the ASEAN Culture House, *ASEAN Animals: Depictions of Animals in ASEAN Arts and Cultures*, puts a spotlight not only on familiar animals that serve multiple functions in our daily environments, but also on imaginary animals known from ASEAN cultures.

The animals that appear in the fables and legends of ASEAN countries are usually personified or deified: these images are then applied in various ways to cultural mediums, including architecture, crafts, and visual art. The naga, a water-dwelling serpent that is engraved onto the wall of the eastern corridor of Cambodia’s Angkor Wat and depicted on the railing of a bridge at Angkor Thom, originated from “Churning of the Sea of Milk,” an ancient Hindu creation myth in which it acts as a helper of the gods. In Thailand and Lao PDR, the naga appears as a seven-headed guardian of the Buddha, who is often shown seated in lotus position on a coiled-up naga. The lion, commonly called the “king of the jungle,” is depicted as a singha or chinthe—which, like the Korean haetae, embodies the valor and majesty that are especially valued by ASEAN citizens—in artworks throughout Southeast Asia. The wit of ASEAN’s people is especially visible in the imaginary creatures that are a combination of real-life animals, such as the gajasingha (animal with an elephant’s trunk and lion’s body), hatsadiling (animals with an elephant’s trunk and tusks, rooster’s comb, snake’s scales, and bird’s wings), and kinnara and kinnari (half-human, half-bird).

The exhibition does not only feature artifacts from prominent Korean institutions, such as the Asia Culture Center in Gwangju or the Hahoe Mask Museum in Andong, but also creations by contemporary artists. One example is *Shadow Forest Story*, a work of interactive media art by several Korean artists that blends Southeast Asian traditional shadow puppet theater with a heavy dose of creativity. Before leaving the Special Exhibition Gallery, visitors will be given a complimentary illustrated card of a representative animal of one of ASEAN’s 10 member states. There are plenty of things to see and everyone is welcome!



기간	4.30(금)-9.5(일)	Period	April 30 to September 5
장소	기획전시실(1층)	Venue	Special Exhibition Gallery (1F)
문의	051-775-2024	Inquiries	051-775-2024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양 박물관  
Maritime Museum in Malacca, Malaysia

## 해상 실크로드: 아세안 문명의 네트워크

해상 실크로드는 기원 전후 서아시아와 인도,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왕래하는 길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남부 옥에오에서 발견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동전은 이미 2세기에 로마와 동남아의 교역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해상 실크로드의 확대는 5~6세기 동남아 여러 나라가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이뤄졌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동남아의 특산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캄보디아, 베트남에 있던 고대국가에서 설탕과 후추, 정향 등의 향신료 교역을 하면서 중국의 음식과 한약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명나라 영락제의 명으로 환관 정화가 남해 원정을 7차례 하면서 중국과 동남아에서 아프리카까지의 항로가 개척되었다. 정화는 베트남 중부의 참파와 인도네시아 자바, 수마트라를 거쳐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스리랑카로 향했다. 이때부터 약 1세기 동안 말라카가 동서 해상 교역의 거점으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이 항로는 기존 동남아 각 나라 선박들이 인도, 서아시아, 중국과 교역하고 때로는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해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루트이다. 해상 실크로드는 단순히 물품의 교역로에 그치지 않고, 종교와 사상의 통로 역할도 했다. 이른 시기에는 이 길을 통해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졌고, 후에는 서아시아에서 인도를 거쳐 동남아로 이슬람교가 유입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5세기 말 세계사의 전환점이 된 대항해시대가 열리면서 유럽 각국이 아세안 여러 나라로 밀려 들어왔다. 이들은 이문이 큰 동남아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앞다퉈 인도와 동남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고 이어서 동남아 각지를 점령했다. 제일 먼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이 동남아에서 각축을 벌였다. 특히 스페인은 멕시코에서 은을 가져와 필리핀에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를 구매하는 삼각무역을 했다. 바야흐로 바다를 통한 세계 교역이 무르익은 셈이다.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아세안의 진귀한 물품이 팔려나가고 인도와 중국, 유럽에서 사람들이 대거 동남아로 이주했지만 이는 또한 식민화를 촉진하기도 했다. 해상 교역을 장악함으로써 부를 축적했던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커피, 고무 나무를 비롯한 남미의 작물을 동남아로 가져와 플랜테이션을 만들었던 것도 결국은 바닷길의 개발로 가능했다. 해상 실크로드는 물류의 교역에서 시작해 인류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문명의 교차로였으며, 세계로 뻗은 아세안의 오늘을 만든 해상 네트워크였다.

글. 강희정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소장

## Maritime Silk Road: A network of ASEAN civilizations

The Maritime Silk Road began developing in the years just before and after the transition to the common era as a sea route that linked West Asia and India as well as India with Southeast Asia. Trade occurred between Rome and Southeast Asia as early as the second century AD, as proven by a coin bearing the face of Roman emperor Marcus Aurelius that was discovered in Ôc Eo, a city in southern Viet Nam. The Maritime Silk Road expanded in leaps and bounds in the 5th and 6th century with the forging of tribute-based relationships with China by several Southeast Asian countries. It was also starting from this period that Chinese court records mention various types of Southeast Asian produce. Trade in spices (sugar, pepper, cloves, etc.), imported from ancient kingdoms in Cambodia and Viet Na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dvancement of Chinese food and medicines. By decree of the Ming dynasty's Yongle Emperor, Zheng He, a Muslim eunuch and eventual admiral, made seven major expeditions of the South Pacific,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trade routes that connected China to Southeast Asia and Africa. It is this foundation of trade routes, which spanned as far as Malacca, Malaysia, and Sri Lanka by way of central Viet Nam (Champa) and Indonesia (Java, Sumatra), through which Malacca amassed significant wealth over the next century as the hub of sea trade for both East and West. This sea route was the site of trade among ship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ose of India, West Asia, and China. It was also the site of battles over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sea trade. Of course, the Maritime Silk Road was more than a trade route: it also served as a thoroughfare for the exchange of religions and ideas. In the early years, the Maritime Silk Road was the means by which India spread Bud-

dhism. Later, it played a key role in the export of Islam from West Asia via India to Southeast Asia.

The Age of Exploration, which began in the late 15th century, was a turning point in world history that was created through the wide-scale infiltration of ASEAN countries by many European powers. The Age of Exploration was based on European countries each being interested in monopolizing the highly profitable Southeast Asian spice trade, resulting in the intensely competitive pioneering of sea routes to India and Southeast Asia and the subsequent occupation of the latter. Portugal and Spain, the first to fight over Southeast Asia, were soon followed by the Netherlands and England. Spain was especially resourceful, engaging in triangular trade by using silver from Mexico to purchase Chinese silk and porcelain in the Philippines. It was the start of international sea trade.

The availability of rare and precious ASEAN goods through the Maritime Silk Road expedited large-scale migration of people from India, China, and Europe to Southeast Asia. However, it also sped up colonization: ASEAN countries, which accumulated massive wealth through their dominance of the sea trade, were colonized by European powers. It is because of sea trade routes that it was possible to bring coffee and rubber trees from South America to create plantations in Southeast Asia. The Maritime Silk Road was a venue for the interaction of civilizations, transitioning from material trade to the migration of people. More importantly, it is the network that created the cosmopolitan outlook of today's ASEAN.

By **Kang Hee-jung**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베트남 옥에오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리구슬  
© 베트남 옥에오문화유적관리위원회  
Glass beads discovered at Ôc Eo, an archaeological site in An Giang Province, Viet Nam © Ôc Eo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ommittee of Viet Nam



1323년 난파된 무역선 신안선에서 발견된 교역품 자단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Red sandalwood, a sought-after commodity, discovered in a Yuan Chinese trade ship that capsized in 1323 near the Sinan Islands, South Korea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교역품 중 하나인 향신료  
Spices were important commodities that were traded along the Maritime Silk Road.



# 오랑라우트, 존재감을 드러낸다

동남아시아 바다의 주역으로 활약한 해양민족.

## The resourcefulness of the Orang Laut

The Orang Laut were seafaring gatekeepers of Southeast Asia's seas.

말레이반도, 수마트라섬, 자바섬, 보르네오섬, 술라웨시섬, 몰루쿠 제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해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섬이 존재하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종족과 그들만의 언어와 신앙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가 얹혀 있다.

그래서 처음 이 지역에 발을 디딘 이들은 길을 잃기 쉽다. '상업의 세기'라 불리는 15~17세기에 동남아산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몰려든 아랍, 중국, 영국, 인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외부인인 그들이 현지에서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섬과 해안선을 능숙하게 오가는 바다 위 유목민 '오랑라우트(Orang Laut)'의 도움이 절실했다. 말레이어로 바다 사람을 의미하는 오랑라우트는 17세기 네덜란드인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인 고대부터 무리지어 바다를 영토 삼아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녔으며, 동남아시아 해로를 거점으로 남중국해와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와 인도양까지 문순 계절풍이 데려다주는 곳이면 어디든 항해했다고 한다. 당시 오랑라우트는 해상의 유목민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어부였고 노련한 상인이었으며 해적이자 용병이었다. 17세기 동남아시아의 바다는 향신료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다. 오랑라우트는 보급품과 수익성 좋은 상품, 항해술 등이 필요했던 외지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길잡이 역할을 하며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술라웨시를 중심으로 보르네오와 말레이반도 등지에서 활동한 부기스족(Bugis), 인도네시아 동부 군도와 필리핀 남부 지역의 군도에 걸쳐 분포한 바자우족(Bajau)이 대표적인 오랑라우트이다. 이러한 해양민족의 세력이 강대해질 때는 섬을 장악하고 국가를 설립하기도 했다. 오랑라우트의 후예 중 소수는 여전히 그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가끔 미디어에 등장해 그 생활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글. 김종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말레이시아 보드카야섬의 바자우족 수상가옥  
Stilt houses of the Bajau people living on the island of Bodgaya, Malaysia

The oceans of Southeast Asia, which span the Malay Peninsula, Sumatra, Java, Borneo, Sulawesi, Maluku Islands, and the Philippines, contain countless islands and wash ashore at coastlines that are very difficult to navigate. They are also home to multiple ethnic groups and their rich diversity of languages, religions, and cultures.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complexity makes it particularly difficult to find one's way around this region. During the age of commerce, i.e., the period from the 15th to 17th century, ships from Arabia, China, England, India, the Netherlands, Portugal, and Spain came to Southeast Asia in droves to obtain the region's native spices. In order to be able to do business locally, foreign merchants were desperately in need of the help of the Orang Laut, a number of seafaring ethnic groups, who traveled easily from island to island and from one coastline to another. According to records by a 17th century Dutch person, the Orang Laut, whose name in Malay literally means "sea people," traveled the seas itinerantly, with no fixed home, since ancient times and went wherever the monsoon winds took them via established Southeast Asian sea routes, from the South China Sea to what is today Taiwan, northern Australia, and as far as the Indian Ocean. In the 17th century, the Orang Laut fulfilled many roles: they were first and foremost fishers, but also seasoned merchants, pirates, and mercenaries. This is important because, at the time, Southeast Asian waters were the site of intense international competition over spices. Based on the high demand for their services, the Orang Laut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ea trade, serving as guides and merchants for foreigners who needed supplies and profitable goods. The Bugis people, who were based in Sulawesi and made their livelihood on the seas of Borneo and the Malay Peninsula, and the Bajau people, who mostly lived on Indonesia's eastern islands and the southern parts of the Philippines, are the most well-known divisions (known as "suku") of the Orang Laut. Some divisions that grew strong by serving an international clientele took over islands and founded their own countries. A small number of Orang Laut descendants continue to work and live as their ancestors did: their way of life is known to us today through occasional instances of media coverage.

By Prof. **Kim Jong-ho**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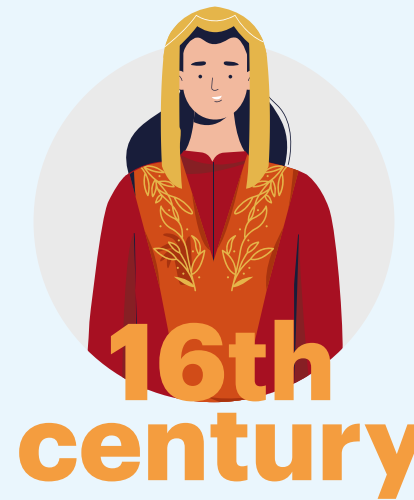
# 아세안 바다

인도네시아에서 활약한 최초의 여성 제독부터 베트남 수산업 시장의 동향까지 아세안의 바다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자.

출처: 코트라

Let's learn about the oceans of ASEAN, from the first female admiral of the modern world (who was Indonesian!) to trends of Viet Nam's fishery market.

Source: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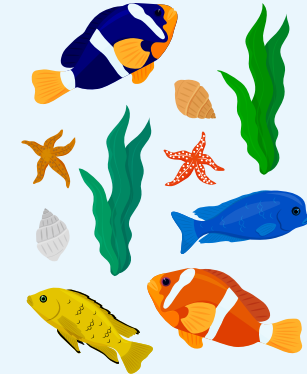
현대 세계에서 최초의 여성 제독인 말라야야띠 제독이 활약한 시기. 그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오늘날 아체 지방을 통치했다.

The era in which Malahayati, the first female admiral of the modern world, was active. She ruled what is today Aceh Province on Sumatra, Indonesia.

1000+

필리핀에 서식하는 암초 어류의 종류. 전 세계 암초 어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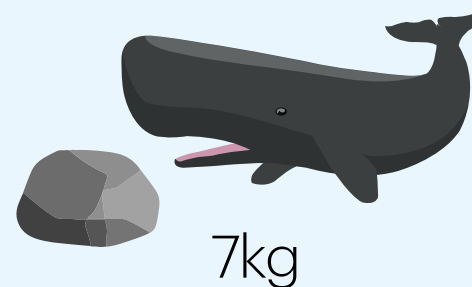
Number of reef fish species that live in the vicinity of the Philippines (comprises over 50 percent of the world's total number of reef fish species).



62

16세기 초 말레이시아 해양 실크로드의 교역항인 므라카에서 무역을 했던 나라의 수.

Number of countries that engaged in trade at Malacca, a trading port in Malaysia that was part of the Maritime Silk Road in the early 16th century.



7kg

태국에서 한 여성이 발견한 용연향의 무게. '해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용연향은 고급 향수의 재료로 사용된다. The weight of a piece of ambergris discovered by a woman in Thailand. Also called a "gift of the sea god," ambergris is used to create high-end perfumes.

USD  
3.9 billion



2019년 상반기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 규모. Viet Nam's export volume of fishery products in the first half of 2019.



# 코타키나발루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 In search of Kota Kinabalu's cultural heritage

찬란한 자연 그 이상으로 찬연한 걸작.

Kota Kinabalu is a masterpiece that may just outshine nature's splendor.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부에 있는 코타키나발루는 사바 주의 주도이자 말레이시아 제7의 도시다. 우뚝 서 있는 키나발루산은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며, 해변은 세계 3대 석양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만큼이나 위대한 문화유산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옛 말레이시아의 모습을 간직한 사바 박물관

휴양지로 거듭나기 이전의 코타키나발루가 궁금하다면 사바 박물관으로 향하자. 외관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의 전통 양식인 롱하우스(longhouse)를 본떠 건축하였다. 롱하우스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긴 형태의 건축물로, 한 동의 가옥에 공간을 분리하여 다수의 가족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주택을 일컫는다. 이 박물관의 전시는 사바주의 민속과 종교, 예술뿐 아니라 자연사 전반을 폭넓게 다룬다. 전통의상, 토속품, 공예품, 도자기, 악기 등의 유물을 통해 여러 부족이 일구어낸 사바의 역사와 문화가 총망라되어 사바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야외 전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민속촌 같은 헤리티지 빌리지가 나타난다. 연못과 정원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분위기 속에 대나무와 흙 등 자연에서 얻은 자재로 지은 사바의 전통 가옥을 지역과 종류별로 재현해놓았으며, 일부는 직접 들어가볼 수 있다.

### 신비로운 코타키나발루 시립 모스크

이곳은 일부가 석호로 둘러싸인 웅장한 이슬람 사원으로 '떠다니는 모스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인상적인 파란 돔 때문에 '블루 모스크'로 불리기도 한다. 이 건축물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설립한 최초의 사원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예언자의 모스크 (Al-Masjid an-Nabawi)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사원 내부는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복장 규정이 있으므로 입구에 있는 센터에서 이슬람 전통 의복을 대여해 차림을 갖춰야 한다. 이곳은 워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모스크로, 호수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15분 동안 물 위에서 모스크를 감상할 수도 있다. 사원이 기도를 올리고 승배를 표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확장된 풍경은 자유롭게 개방적인 말레이시아 무슬림 문화를 보여준다.

Located in northern Borneo, Kota Kinabalu is the state capital of Sabah and the seventh largest city in Malaysia. Mount Kinabalu, the country's largest mountain, is often referred to as an "ecological repository," while the city's coastline is known as one of the world's most beautiful sunset locations. Lesser known is the fact Kota Kinabalu is home to cultural facilities that are as majestic as the city's natural surroundings.

### Sabah Museum: An archive of old Malaysia

If you want to know what Kota Kinabalu looked like before becoming a resort destination, try visiting Sabah Museum. From the outside, the museum resembles a traditional Borneo longhouse, which, as its name suggests, is a long and narrow building. Longhouses are multi-unit dwellings that are divided into several independent spaces that are occupied by different families.

The museum's exhibitions cover in great detail not only Sabah's folk customs, religion, and arts but also the city's natural history. The museum is an excellent place to better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Malaysia as a whole, thanks to its broad coverage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Sabah's many ethnic groups through various artifacts, including traditional clothing, folk objects, handicrafts, pottery, musical instruments, and more. A walk through the muse-

um's garden, which includes a pond, leads to Heritage Village, a folk village-like compound. Nestled inside eco-friendly surroundings, Heritage Village is made up of replicas of traditional houses, representing different regions and functions, that were created with natural materials, such as bamboo and clay. Some of the houses are kept open for visitors.

### Masjid Bandaraya: A fascinating municipal mosque

Masjid Bandaraya, nicknamed "floating mosque," is a majestic Islamic mosque that is partially lined with an artificial pond. It is also called the "blue mosque" for its impressive blue dome. The building's design was inspired by what is known as "The Prophet's Mosque" (Al-Masjid an-Nabawi), the first mosque built by Mohammed, the founder of Islam, that is also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world. Visitors are free to enter the mosque outside of regular worship times but must abide by its dress code: traditional Muslim attire can be rented at the entrance for a modest fee. The mosque is the first in Malaysia to offer recreational activities on an artificial lake. Visitors can appreciate the beauty of Masjid Bandaraya through a 15-minute tour via paddle boat. The fact that Masjid Bandaraya is a space not only for prayers and worship but also for recreational activities is indicative of the liberal nature and openness of Malaysia's Muslim culture.



코타키나발루 시립 모스크  
Masjid Bandaraya Kota Kinabalu



# 한국화로 그린 꿈

## 한예진

### Han Ye-jin: Giving shape to her dreams through traditional Korean painting

2007년 4월, 티반니 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며 한예진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처음엔 동생들의 학업을 잇기 위해 찾은 먼 땅이었지만 한국은 그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은 물론,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미술 개인전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안겨주었다. 낯선 땅에서 그에게 편안함과 자신감, 존재감을 심어준 것은 한국의 전통 회화인 한국화였다.



수많은 미술 장르 중에서 한국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2013년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미술 시간에 우연히 한국화를 접했어요. 원래 자연과 문학, 문화와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를 아우르는 한국화를 만나게 된 거죠. 한국화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외국인이 한국화에 관심을 가지는 게 뜻밖이었나 봐요.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국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도라고 생각해요. 또 그리든 사람 특유의 감성과 정서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요. 그래서 한국화를 그릴 때 감상자가 제 그림을 통해 마음에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라며 작업했어요. 또 풍경화를 그릴 때에는 고향인 캄보디아의 들녘을 추억하며 화폭에 옮기곤 했습니다.

**소재를 선정할 때에도 나름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제를 골랐고, 저마다의 의미가 마음에 들어 선택했어요. 난초는 꽃이 피면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해주죠. 삶에서도 이 꽃과 같은 작은 도움과 베풀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택했어요. 대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는 강한 힘을,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푸른 모습을 소망하며 그렸어요. 포도를 종이 위에 옮길 때에는 가정의 모든 일이 이 알찬 열매처럼 수확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의 꿈과 목표를 물어볼 차례네요.**

지금처럼 사랑하는 제 가족들을 위해 가정을 살뜰히 가꾸며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등 취미 생활도 조금씩 병행하고 싶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추후에는 임용고시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한예진 씨가 한국화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Han Ye-jin concentrates on a traditional Korean painting.

In April 2007, Thy Vanny emigrated from Cambodia to Korea and took on a new name: Han Ye-jin. When she left her native country, Han's original goal in was to earn enough to fund her siblings' tuition. However, completing not only middle and high school but also a bachelor's degree in Korea gave her much more than she had hoped for: today, Han is an artist who has held private exhibitions in both Cambodia and Korea. The medium that gave Han confidence, a sense of self, and comfort in a unfamiliar country was—surprisingly—traditional Korean painting.

**Of all the visual art genres there are in the world, you chose traditional Korean painting. How did you decide to pursue it?**

I experienced traditional Korean painting for the first time during art class in Mokpo Jeil Information Middle & High School in 2013.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hings that are related to nature, literature, and culture and soon realized that traditional Korean painting encompasses all of these things. People who know me—and those who don't—were very surprised when I announced my decision to study traditional Korean painting. I guess it's because no one expected a foreigner to be interested in this genre.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painting?**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raditional Korean painting is composition. I also believe that a traditional painting should reflect the painter's personality and emotional world. This is why, each time I paint, I tell myself that I hope the viewer finds peace of mind. When doing a landscape piece, I often think of and bring to the paper my memories of Cambodia's wide-open fields.

**What is your "criteria" for selecting your paintings' subject matter?**

I choose subjects that are frequently used in traditional Korean painting. Another factor that influences my decision is whether I like the meaning of a particular image. When an orchid blooms, the fragrance of the blossom spreads far and wide by the wind. I chose to paint orchids because I realized that acts of kindness that are as small as an orchid's blossoms can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 I painted bamboo because I enjoyed its indomitable strength and the fact that it is not easily broken, and the pine tree because there is so much hope in its year-round greenery. When painting grapes, I kept thinking of my hope that everything my family does this year reaps rewards as full and abundant as the bunch of grapes on the paper.

**What is your dream or aspiration?**

I want to continue being as happy as I am now: taking care of my beloved family while painting—which I truly love—on the side. I know it'll be very difficult but someday I would like to try taking the teacher qualification exam in Korea.

# 술술~ 말레이어 한마디

## Let's Talk! Malay

아빠 까바!(안녕하세요!)

여행지에서 짧게라도 현지어로 말을 건네면, 그 나라의 문화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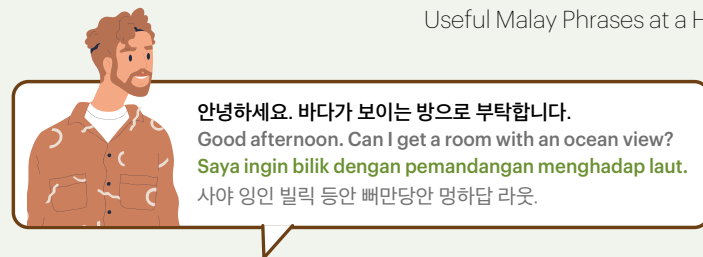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호텔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Apa khabar! (Gree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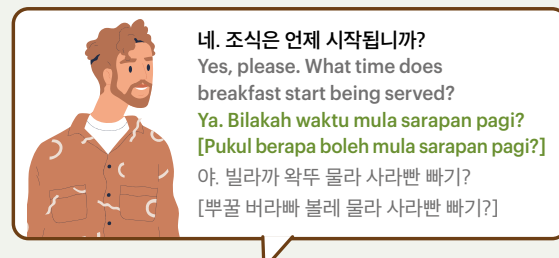
Being able to say a few sentences in the local language when traveling can serve as a useful foothold for gaining an understanding of a country's culture. For the July issue of the ACH, let's go over Malay phrases that can be used when checking in at a hotel.

### 호텔에서 사용하는 말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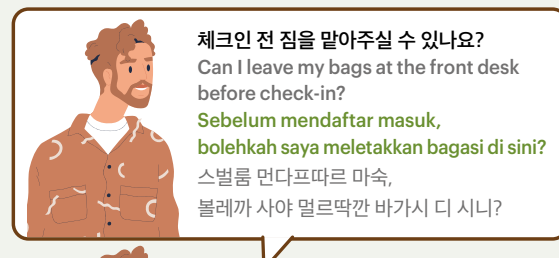
Useful Malay Phrases at a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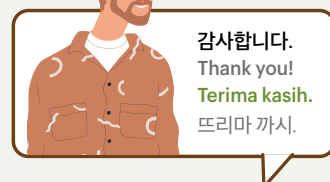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Can I get a room with an ocean view?  
**Saya ingin bilik dengan pemandangan menghadap laut.**  
사야 잉인 빌릭 등안 뽀만당안 멍하답 라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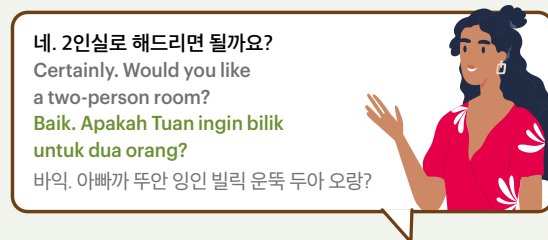
네. 조식은 언제 시작됩니까?  
Yes, please. What time does breakfast start being served?  
**Ya. Bilakah waktu mula sarapan pagi?**  
**[Pukul berapa boleh mula sarapan pagi?]**  
야. 빌라까 왓두 물라 사라뽀 뽀기?  
[뿌꿀 버라뽀 볼레 물라 사라뽀 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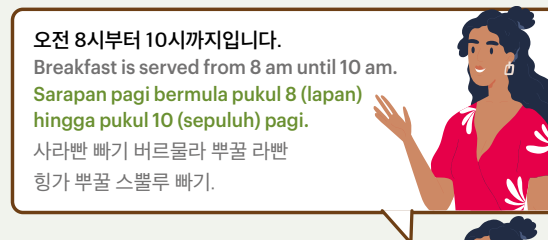
체크인 전 짐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Can I leave my bags at the front desk before check-in?  
**Sebelum mendaftar masuk, bolehkah saya meletakkan bagasi di sini?**  
스벌룸 먼다프따르 마숙,  
볼레까 사야 멀르뽀딕칸 바가시 디 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erima kasih.**  
뜨리마 까시.



네. 2인실로 해드리면 될까요?  
Certainly. Would you like a two-person room?  
**Baik. Apakah Tuan ingin bilik untuk dua orang?**  
바익. 아뽀까 두안 잉인 빌릭 운똥 두아 오랑?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Breakfast is served from 8 am until 10 am.  
**Sarapan pagi bermula pukul 8 (lapan) hingga pukul 10 (sepuluh) pagi.**  
사라뽀 뽀기 버르물라 뿌꿀 라뽀  
힝가 뿌꿀 스폐루 뽀기.



물론입니다.  
Of course.  
**Ya, boleh, silakan.**  
야, 볼레, 실라칸.

번역 및 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 김예겸 교수,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 하나피 후센 교수  
Translated and Proofread by Prof. Kim Ye-kyoum (Department of Indonesian and Malaysi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Prof. Hanafi Hussin (Universiti Malaya, Malaysia)

## 아세안 신들의 쉼터,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Playground of ASEAN's Gods

서울 용산에서 아세안의 여러 신들을 만날 수 있다? 궁금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다양한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는 박물관에서 우리의 목적지는 상설 전시가 열리는 세계문화관이다. 상설전시실은 6개의 관과 50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만 2,044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세계문화관은 남쪽 전시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인도·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이집트,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문화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인도·동남아시아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아세안의 신들이 모여 있는 세계로 한 발짝 진입하는 순간이다.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캄보디아의 석조 가네샤 입상이다. 통통한 사람의 몸에 달린 코끼리의 얼굴과 4개의 팔을 가진 지혜와 행운의 신 가네샤는 힌두교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신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관을 쓰고, 허리에는 삼포트(Sampot; 치마처럼 허리에 감는 천)를 두르고 있다. 3개의 팔은 파손되어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남아 있는 하나의 왼손에 흰 연꽃 봉오리만 큼은 선연하다. 태국에서 온 호리호리한 형태의 청동 미륵보살 입상 앞에 잠시 멈춰 선다. 머리 장식의 정면에 있는 스투파가 이 동상이 미륵임을 짐작하게 한다. 드바라바티 시기에 제작된 이 작품은 몸은 훌쩍하게, 손은 커다랗게, 귀는 금방이라도 어깨에 닿을 듯 길게 표현했다. 긴 눈과 코를 가졌으며, 입술은 두툼하다. 왼손에는 물병을 들고, 오른손은 설법인說法印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시장 한 바퀴를 쫓 둘러보고 나오니 잠시 꿈을 꾸 듯한 기분이다. 이번 주말에는 아세안의 신들과 만나보는 건 어떨까.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거리두기 관람을 시행해 온라인 사전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There is a place in Seoul's Yongsan District where locals and tourists alike can encounter the many gods of the ASEAN regio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More specifically, one must seek out the World Art Gallery, a section of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The NMK's exhibition space is made up of the Special Exhibition Gallery and Permanent Exhibition Hall, which in turn is comprised of six sections and 50 galleries that house a total of 12,044 artifacts.) The World Art Gallery, located at the southern end of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contains cultural traces of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India & Southeast Asia, Egypt, China, Japan, and Central Asia. By stepping into the India & Southeast Asia Gallery, visitors are entering one of very few places in Korea that house statues of gods and goddesses from not just one but all ASEAN countries. The first thing that attracts visitors' gaze is a Cambodian stone statue of a standing Ganesha. Among worshippers, Ganesha (also spelled Ganesha), the Hindu god of wisdom and fortune who has a chubby human body, elephant's head, and four arms, is one of the most beloved of the Hindu deities. The statue in the NMK wears an elaborate crown and a sampot, a long piece of cloth worn by wrapping it around the lower body. Three of the four arms are damaged, making it impossible to know the objects the hands once held, while the sole remaining left hand holds a still clearly distinguishable lotus blossom. Another captivating relic is a slender bronze Maitreya Bodhisattva statue from Thailand, whose identity is suggested by the stupa in the center of the head ornament. This statue, which was created in the Dvaravati period, has a thin body, proportionately outsized hands, earlobes that extend almost as far as the shoulders, large eyes and nose, and thick lips. What is noteworthy are the hands: the right holds a water bottle, while the left is posed in the gesture of reassurance and safety, known as abhaya mudra.

After a full tour of the India & Southeast Asia Gallery, one will feel as if having woken up from a dream. How about a trip to the NMK this weekend to explore the beautiful and fascinating gods of ASEAN? In accordance with current social distancing regulations, visitors are required to reserve tickets online in advance.

Source: National Museum of Korea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b>4.30(금) ~ 9.5(일)</b> <b>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b> <b>&lt;친근하고도 신비한 아세안의 동물들&gt;</b> 기획전시실(1층)</p> <p><b>April 30 to September 5</b> <b>2021 ASEAN Culture House Special</b> <b>Exhibition "ASEAN Animals: Depiction of Animals in ASEAN Arts &amp; Cultures"</b> Special Exhibition Gallery (1F)</p>	<p><b>4.30(금) ~ 9.5(일)</b> <b>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b> <b>&lt;친근하고도 신비한 아세안의 동물들&gt;</b> 기획전시실(1층)</p> <p><b>April 30 to September 5</b> <b>2021 ASEAN Culture House Special</b> <b>Exhibition "ASEAN Animals: Depiction of Animals in ASEAN Arts &amp; Cultures"</b> Special Exhibition Gallery (1F)</p>	<p><b>6.19(토) ~ 7.24(토)</b> <b>아세안 문화강좌: 알봉달송 동물이야기</b> 세미나실201(2층)</p> <p><b>June 19 to July 24</b> <b>Lecture Series: ASEAN Culture and Animal Discovery</b> Seminar Room 201 (2F)</p>		<p><b>6.29(화) ~ 7.9(금)</b> <b>아세안 언어강좌 회화반</b> 세미나실201(2층), 대강당(4층)</p> <p><b>June 29 to July 9</b> <b>ASEAN Language</b> <b>Conversation Course</b> Seminar Room 201 (2F), Auditorium (4F)</p>		<p><b>한국 제헌절</b> Constitution Day [Korea]</p>
<p><b>11</b></p>	<p><b>12</b></p>	<p><b>13</b></p>	<p><b>14</b></p>	<p><b>15</b> 브루나이 다우살람 술탄 탄생일 H.M. The Sultan's Birthday [Brunei Darussalam]</p>	<p><b>16</b></p>	<p><b>17</b></p>
<p><b>18</b></p>	<p><b>19</b> 미얀마 순교자의 날 Martyrs' Day [Myanmar]</p>	<p><b>20</b> 브루나이 다우살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하리 라이 아이딜 아다 Hari Raya Aidil Adha [Brunei Darussalam, Indonesia, Malaysia]</p>		<p><b>22</b></p>	<p><b>23</b> 미얀마 와소 보름날 Full Moon Day of Waso [Myanmar]</p>	<p><b>24</b> 라오스 분 카오 판사 Boun Khao Phansa [Lao PDR]</p>
<p><b>25</b> 태국 카오판사 Khao Phansa Day [Thailand]</p>	<p><b>26</b> 태국 아살라 푸자 휴일 Asalha Puja Holiday [Thailand]</p>	<p><b>27</b> 태국 카오 판사 휴일 Khao Phansa Holiday [Thailand]</p>	<p><b>28</b> 태국 국왕 탄생기념일 H.M. King's Birthday Anniversary [Thailand]</p>	<p><b>29</b></p>	<p><b>30</b></p>	<p><b>31</b></p>
<p><b>5.28(금) ~ 7.31(토)</b> <b>2021 상반기 아세안 요리교실(봄&amp;여름)</b> 요리체험실(3층)</p> <p><b>May 28 to July 31</b> <b>2021 ASEAN Cooking Class (Spring &amp; Summer)</b> Cooking Studio (3F)</p>						
<p><b>7.27(화) ~ 8.5(목)</b> <b>어린이 특별 프로그램 슬기로운 방학생활: 베트남</b> 세미나실201(2층)</p> <p><b>July 27 to August 5</b> <b>Vacation Program for youths: Discover Viet Nam</b> Seminar Room 201 (2F)</p>						

## 상설전시 On Going

**'한국 속의 아세안, 아세안 속의 한국' 벽면 사진전**  
**'ASEAN in Korea, Korea in ASEAN' Hallway Photo Exhibition**  
복도(2층) Corridor (2F)

**아세안문화원 온라인 전시**  
**ACH Online Exhibition**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ACH Website([www.ach.or.kr](http://www.ach.or.kr))



**주소 Address**  
481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2  
162 Jwadong-ro, Haeundae-gu, Busan 48108,  
Republic of Korea

**운영시간 Opening Hours**  
화요일 - 금요일 Tuesday - Friday: 10:00 - 18:00  
토요일 & 일요일 Saturday & Sunday: 10:00 - 19:00  
월요일 & 공휴일 휴관 Monday & Public Holidays: Closed

**KOREA KF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은 2017년 9월 개원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opening of the ASEAN Culture House in September 2017, it has been operated by the Korea Foundation.  
**월간 아세안문화원 2021.7 Vol. 47**  
등록번호 해운대라 00025 등록일자 2018. 2. 28. ISSN 2714-0849 발행일 2021. 6. 25. 발행·편집인 이근 발행처 아세안문화원  
디자인·제작 (주)에이저커뮤니케이션즈 | 월간 아세안문화원 웹진(<https://www.ach.or.kr/achNewsletter>)